

“여긴 괜찮겠지” 방심 금물…‘방역 고삐’ 다시 바짝 죄야

광주 코로나19 확산 비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초긴장 상태다.

특히 확진자 수가 매일 늘어나고 있는데다, 지역 사회의 방역 의식도 느슨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역 대응 수준이 3단계로 상승하게 되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번 주말,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둘러본 광주지역 곳곳의 다중이용시설들의 방역 수준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광주 고위험시설 4333곳

일부 마스크 안쓰고 발열체크 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팬
상당수 다중시설 운영 중단 등
자영업·소상공인 피해 극심

광주시에 파악한 고위험시설은 13개 업종 4333개로, 방문판매 등 홍보관·유통물류센터·대형학원(300인 이상)·뷔페·유흥주점·헌팅포차·노래방·pc방·헬스클럽·교회 등이다. 광주시는 또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않다는 판단에 따라 중위험시설 중 밀집도가 높고 지하에 있는 게임장·오락실·공연장·실내체육시설·멀티방·목욕탕·사우나·장례식



9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 오락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젊은이들이 1m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채 게임을 하고 있고(왼쪽), 광주시 동구 대형쇼핑몰 후문에는 손소독제나 발열체크 등의 방역지침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회적거리두기 각 단계별 조치 내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집합·모임·행사	허용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시설	공공	운영 허용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원격수업	등교원격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기관·기업	공공	근무밀집도 최소화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권장	근무인원 제한 권고

장도 고위험시설로 관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방역 수칙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어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날 오전 찾은 광주시 서구 마북동 대종목육양의 경우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이용객들 중 마스크를 착용한 손님은 전혀 없었다.

최근 사우나를 방문한 확진자를 통해 바이라스가 전파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곳은 괜찮겠지, 이 정도 쭈어야’라는 허술한 방역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서구 매월동 찜질방도 카운터와 매점 관리자만 마스크를 착용할 뿐 찜질방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이용객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북구지역 공무원 고시학원 독서실의 경우 입구에 QR(전자출입명부)코드와 손소독제가 놓여있지만 드나드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도 하지 않았다. 관리자도 없다 보니 대부분 학생들은 전자출입명부도 작성하지 않고 독서실을 드나들었다. 북구 용봉동 코인노래방도 비슷했다. 명부 작성을 요구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 노래방 이용객들은 출입명부를 무시하고 이용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오락실도 6개의 노래 부스에는 마이크 덮개도 없었고 출입명부도, 발열체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락실을 이용하던 20대 4명은 마스크도 없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동구 도상에 위치한 대형쇼핑몰도 1층 출입구 5곳을 모두 개방하면서도 타자와 손소독제만 놓았을 뿐 출입자 명부도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발열체크도 이뤄지지 않았다.

방역전문가들은 지역민들의 허술한 방역의식이 바뀌지 않을 경우 방역 대응 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상당수 다중이용시설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은 물론 중위험시설까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예를 들면 수영장·헬스장·콜센터·놀이공원·PC방·뷔페 등이 문을 닫아야 하고 야구경기도 중지된다. 공공기관들은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가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등도 전면 금지된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기특이나 힘든 지역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달 코로나발 경기침체로 폐업신고한 일반음식점(140곳)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돌만하다.

방역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이 지역경제에 미칠 타격은 볼 보듯 뻔한 상황으로 3단계로 격상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방역에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n차 감염’ 불안 고조…광주·전남 등교 중지 잇따라

광주지역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남으로 확산된 가운데 ‘n차 감염’을 우려한 등교 중지가 잇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화순 도곡중앙초등학교와 도곡초등학교가 이날부터 이틀동안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전남 31번 확진자인 영암 금정면사무소

여직원의 조카가 이 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파악된 데 따른 예방적 조치로, 10일까지 학교를 폐쇄한 뒤 교직원과 재학생 모두 음성 판명이 날 경우 오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남 31번이 친인니, 조카 등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등교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8일에는 광주 광산구 모 중학교 특수실무사의 50대 남편(광주 125번)이 광주고시학원발(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해당 학교 부분등교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진단 결과 해당 특수실무사는 음성 판정을 받아 학교는 하룻 만에 정상화됐다. 최근 2주일 새 2차 확산이 본격화된 광주에서는 일곡중앙교회 집단감염의 여파로

초등생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북구지역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1·2학년이 12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광주지역 전체 공·사립 유치원도 어린이집 휴원에 맞춰 17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증상 감염자가 적지 않고,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깜깜이 보균자’도 많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특히, 시험을 앞둔 학교들의 경우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n차 감염 차단과 선제적 조치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결혼하고 같이 살자” 유부녀의 거짓말

46차례 걸쳐 5600만원 가로챈 여성 법정 구속

“결혼하고 같이 살자. 이사를 해야하고 값을 돈도 있다.”

2017년 12월, 여자친구 A(37)씨 말에 남자친구는 의심없이 300만원을 건넸다. A씨 말은 거짓이었다. 결혼에 뜻이 없었고 이미 지난 2017년 11월,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A씨의 거짓말은 계속됐다. 2018년 5월에는 피해자인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갚지 않으면 고발당해. 친척언니 B(38)가 합의보려고하니까 연락해봐”라고 했다. A씨는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으려고도,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걱정스런 전화를 받은 남자는 친척언니와 통화한 뒤 합의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해주시기도 했다. 친척언니도 “내가 합의보러 간다.

1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남자를 속였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까지 46차례에 걸쳐 5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의 친척 B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반영했다.

다만, B씨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반영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징역 1년 4개월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 A(6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

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광주시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4일 된 갓난아이가 잠

을 자지 않고 보챌때마다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거세게 흔들거나 침대 위에 던지듯이 놓는가 하면,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개인 사정 등으로 우울증 및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아기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

혔다.

아기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 학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영상에서만 최소 7차례 학대를 저질렀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